

한국어 움라우트의 개재자음 제약에 대한 검토

김 주 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On Intervening Consonants Constraint in Umlaut in Korean

Juwon Kim
Dep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 kjwn@snu.ac.kr

Abstract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intervening consonants constraint in umlaut in Korean. It is generally known that if a palatalized consonant, i.e. $s/\text{ㅅ}/$ or $tj/\text{ㅈ}/$ etc, intervenes in an umlaut environment, the expected umlaut process is blocked. But there are not a few words which are thought to have undergone umlaut diachronically:

wensu (<wənsu<wənsju 'enemy')
søtfu or swetfu (<soʃfu<sjoʃsju 'wine')
t^hyʃən or t^hwiʃən (<t^huʃən<t^huʃjən 'gambling')

If we assume that these words were formed as a result of umlaut, we must explain the reason of the violation of the intervening consonants constraint. On the other hand if we assume that these words were formed as a result of other phonological processes, we must explain these words by *ad hoc* rules respectively.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se words including others have undergone the umlaut process by offering some historical and dialectal evidence.

I. 서론

움라우트는 언어보편적인 음운현상으로서 한국어 음운사에서도 매우 활발히 일어났으며 그 양상이 방언마

다 조금씩 달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움라우트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던 개재자음 제약 문제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공시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겠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를 다루기 때문에 통시적인 관점의 자료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다룰 자료는 특정 방언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어 음운사의 관점에서 여러 방언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다.

II. 문제의 제기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를 예를 들어서 요약하여 말하자면 '쇠주'와 '웬수'가 움라우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얼핏 보아서 이 단어들은 움라우트와 전혀 관계 없는 단어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단어들의 이전형이 각각 '쇼쥬'와 '원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2음절에 'j'가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음의 영향으로 제1음절의 후설모음이 전설모음화되는 움라우트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물론 이 어형들에서 현대어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j 탈락 현상과 병행해서 일어나야 한다.³⁾

쇼쥬>(움라우트) 쇠쥬>(j 탈락)쇠주

3) 이에 대해서는 최전승(1986: 136 이하)에 자세한 설명과 관련된 예가 제시되어 있다.

원슈>(음라우트) 웬슈>(j 탈락)웬슈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개재자음이 ‘ㅅ, ㅈ’ 즉 이른바 [+coronal]이어서 이 환경에서는 음라우트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명옥(1989:23 각주 18)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앞 생략) 그러나 ‘쇠쥬’를 음라우트의 예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음라우트가 적용될 수 없는 한자어라는 것이고(김완진, 1963: 18-20) 동시에 음라우트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구개음이 개재자음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 생략)”

최명옥은 같은 논문에서 논의를 정밀화하여 한국어의 음라우트를 지지하는 자음의 변별자질을 종래의 [+coronal] 또는 [+grave]가 아니라 [+high, -back]이라고 하여 경구개자음으로 국한시켜 놓고 있다.⁴⁾ 한국어에서 음라우트를 지지하는 개재자음 제약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음라우트를 겪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설명 타당성이 높은 경우에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다.

III. ㅅ, ㅈ 개재자음의 예

필자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게 된 것은 방언조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어형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튀전(강원도 동해시, 제보자 장승귀 여 79세)

이 단어는 물론 ‘투전(鬪戔)’을 뜻하는 것으로 위에서도 보았듯이 현대어형을 보아서는 음라우트와 관계짓기 어렵지만 문헌에 나타나는 이전형은 다음과 같다.

투전 <同文類解 下32, 譯語類解 補篇 47, 交隣須知 三 30, 物譜 博戲>

한자어 ‘투전’에서 방언형 ‘튀전’이 나온 것으로 가정한다

4) 더 정확하게는 음라우트를 가능하게 하는 개재자음의 음운론적인 조건은 ‘調音時에 {i, j} 앞에서 [a high, a back]의 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최명옥 1989:26).

다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음라우트에 의한 것으로 본다. 둘째, 한자음 ‘투’가 ‘튀’로 변화했다. 음라우트로 볼 경우 개재자음 ‘ㅈ’이 문제가 되고 한자음이 ‘튀’로 변했다고 보기에는 그 조건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유사한 예를 들고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잠티정 ‘잠투정’ (대구 방언)
튀정 ‘투정’ (방언)⁵⁾
쇠쥬 ‘소쥬’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황해)
취세기 ‘추석’, 입석 ‘음식’, 뭉시기 ‘무엇이’ (고려말)

원성 ‘운성 穩城’ (함북 운성, 땅이름)⁶⁾

여기에서 제2음절이 반모음 ‘i’ 즉 [j]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이기로 한다.

투정 ㅎ다 爭添 <漢清文鑑 8:45>
투정 ㅎ다 討添 <譯語類解 補篇 37>

酒 술 쥬 <訓蒙字會 中10b>

나머지 예들은 현대어에서도 [j]를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문헌을 뒤적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들 예는 제2음절에 [j]가 있으므로 음라우트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비록 이 단어들이 한자어이기는 하지만 김완진(1963)의 가설에 따르면 하더라도 ‘학교<학교>에서처럼 거의 고유어처럼 인식될 수 있는 어휘들이며 음라우트 이외의 기제로 설명하려면 개별 어휘 하나 하나에 대해서 그 변화를 임의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한다.⁷⁾ 그러기보다는 음라우

5) 이희승 국어대사전.

cf. 튀정 ‘투정’의 잘못(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6) 황대화(1986: 185) 참고.

7) 다음과 같은 단어는 어떤 식으로든 달리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

피준말 (강원도 양양군 김경희 여, 69세)

‘標準’의 ‘準’은 ‘므저울 쥬’<新增類合 上. 28b>으로 나타나므로 역시 음라우트가 일어날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 방언을 비롯한 다른 방언에서 ‘차표’ 등의 ‘표 票’가 ‘피’로 실현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피 ‘표 票’ (함경, 평북, 충청, 강원)

트라는 보편적 기제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래의 예는 고유어에서 나타나는 예이다.

미섭다 ‘무섭다’ (황해, 함남, 평북, 강원, 충청 등)⁸⁾
미섬 ‘무섬’ (평북)

이 예는 최명옥(1989:16)에서 음라우트가 아닌 예로 다루어진 바 있으나 역시 음라우트로 보아야 할 예이다.

므의엿다>므시엿다>무섭다>뫼섭다>미섭다>미섬다

다행히 ‘뫼섭다’ 단계의 단어가 문헌에서 발견된다.

뫼섭다 31b <興律寺版念佛普勸文 1765년 황해도 殷栗방언>

아래의 예는 문헌에 나타나는 것들이다.

계집 1b, 식치며 想 32a, (비식며 榮 24b) <勸念要錄 1637년, 전남 求禮방언>

만지니 43a <二.偷行實圖 箕營版 1727년, 평안도 平壤방언>

지금까지 勸念要錄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에미’의 예만 음라우트로 인정하였고 ‘계집, 식치며’는 적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밀하게 문헌을 분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ㅈ’이 개재한 예를 음라우트로 선뜻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예들이 현대적 관점에 의해서 음라우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당시에는 개재자음 제약이 없었거나 훨씬 느슨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IV. 남은 문제

위에서 ‘ㅅ’이나 ‘ㅈ’을 개재시킨 제1음절 전설모음화의 예를 들면서 그것을 음라우트의 예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어에서 일어난 음라우트는 두 단계를 거쳤

이 경우에는 ‘표’ 자체의 변화로 볼 가능성도 있다.

표>(어말 | 첨가) ㅍ>(j 탈락) ㅍ 또는

표>(음운도치) ㅍ

8) 참고 1994: 37 각주 (16), (17) 참고.

음이 인정되고 있다. 즉 뒤따르는 i나 j의 영향으로 앞음절의 후설모음에 반모음 i를 추가하는 것이 그 첫 단계이고(ex. ‘식치며’),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음라우트 즉 뒤따르는 i나 j의 영향으로 앞음절의 후설모음이 전설모음화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일반적으로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왔다고 보지 않는다. 음운사 연구에 있어서 어떤 음운현상을 보이는 한두 예가 발견될 경우 취하는 태도는 연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그 한두 예를 변화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이미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그 시점에서 아직 변화를 겪지 않은 예들을 통해서 변화를 겪은 예들을 예외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본고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예보다 나타난 예를 적극적인 증거로 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즉 한 마리의 제비는 이제 곧 봄이 올 것임을 알려주는 예로 보고자 한다.

셋째, 음운현상은 체계의존적이다. 따라서 위에서 여러 방언들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각 방언들은 음운체계 또는 최소한 변별적 자질이 다를 수가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각각의 체계 내에서 음라우트를 다루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일례로 현대 평안도 방언의 경우 i 앞에서 ㅅ이나 ㅈ이 경구개음이 아니라 치경음으로 실현된다. 이런 경우에 ‘만지-’나 ‘가지-’가 제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맨지-’, ‘개지-’로 음라우트가 일어날 수 있다. 중세국어도 현대의 평안도 방언과 같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넷째, 우리가 위에서 다룬 형태소 내부에서의 음라우트는 통시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라우트는 공시적인 것이다.

밥을, 밥도 뱀이,
사람을, 사람도, 사램이

이렇게 보면 국어의 음라우트는 최소한 17세기에서 20세기의 약 400년 걸친 긴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또는 일어나고 있는) 규칙이다.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에 음라우트 규칙은 방언 간에 또는 동일한 방언이라고 할지라도 시기에 따라 특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쇠주, 웬수, 튀전’ 등의 몇몇 단어를 예로 들어서 그것을 음라우트 규칙의 적용을 통하여 형성된

단어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개별적인 현상을 통하여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단어들이 음라우트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려면 한국어의 음라우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재자음 제약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별개의 개별적인 이유에 의해서 제1음절의 모음이 전설모음화했다고 보기보다는 음라우트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되 시기에 따라, 방언에 따라서 제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문헌

- [1] 고동호(1995), 제주 방언의 음라우트 연구, 언어학 17:3-24.
- [2] 김주원(1994), 18세기 황해도 방언의 음운 현상—普勸念佛文(興律寺版)의 분석을 통하여—, 국어학 (국어 학회) 24:19-44.
- [3] 김주원(1998), 몽골어와 한국어의 음라우트 대조 연구, 알타이학보 8:121-142.
- [4] 김주원(2000), 국어의 방언 분화와 발달, 『韓國文化思想大系』 제1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151-185.
- [5] 최명옥(1989), 국어 음라우트의 연구사적 고찰, 周時經學報 3:7-39.
- [6] 최임식(1994), 『국어방언의 음운사적 연구』, 문창사.
- [7]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全羅方言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 [8] 최전승(1990), 음라우트,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pp.95-108.
- [9] 황대화(1986), 『동해안방언 연구』, 김일성종합대 출판사.